

지역 소식통

고창군,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 운영

고창군이 11월을 체납세 징수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과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실시한다.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 차량에 대한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 차량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인 차량 공매를 진행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전국 재산 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차량 압류와 예금, 주식, 가상자산, 매출채권 등 금융자산과 봉급 소득에 대해서도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또한 상반기 도에서 실시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서 대상 수상에 시상금 2600만원을 받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맛·맛·향 산업육성 지역농협 자원조사 점검

정읍시는 14일 제2청사에서 맛·맛·향 산업육성을 위한 지역농협 자원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농협 자원조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농협과 함께 정읍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특화 식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지역농협 관계자와 농업기술센터 농업 실무부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등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문가를 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비전과 전략, 정책 우선순위 조사·분석을 통해 최종보고회가 있을 12월 말까지 지역농협 현황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새로운 정읍 농정비전과 목표 수립, 예산 확보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럼피스킨 최고등급 방역 추진

고창군 노형수 부군수 "가용 소독자원 총동원해 럼피스킨 확산 막을 것"

고창군이 소 럼피스킨 관련,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한 최고등급의 가축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4일 노형수 고창 부군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가축질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관내 럼피스킨 확산 농가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했다. 고창군은 현재 한우사육 농가 6개소에서 럼피스킨 확진 판정으로 673두가 살처분 및 랜더링 처리됐다. 백신 접종은 완료했지만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일부 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창군은 백신접종 완료에 따라 럼피스킨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 파리 등 흡혈곤충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거점소독시설 3개소를 24시간 운영



해 차량을 통한 매개체 유입을 막고 소독방제 차량 7대를 활용해 발생농장 인근 매개곤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농가 844호에 소독약품 4.2톤, 생석회 59톤, 파리모기 살충제 4220봉을 공급했고, 농장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된 108명이 매일 농가 예찰을 실시 중이다. 노형수 부군수는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인 3주 후인 다음주에는 추가발생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며 "소 농장 전담관제를 운영해 상시 전회예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홍보하고 가용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방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읍'

임산부에 산후 건강관리비 최대 20만원 지원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산후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보건소는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를 위해 1인당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라북도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산모는 출산 후 동네 지정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한 진료를 받으면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시 보건소를 방문해 건강재활과 모자보건팀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민선 8기 정읍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태

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자체예산 24억원을 세워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의 육아수당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확보해 더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모실과 수유실 산모관리실 등 산모의 산후 관리에 특성화된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화수 시장은 "출생 후 첫 만남이 용건과 출생축하금 지원 등으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출산 친화적 시설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라도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서

부안군의회가 14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도천년사 수정 발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박병래 의원은 "전라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제작·발간한 전라도천년사가 친일사관 논란으로 지역민의 자존심을 훼손하

고 있다"며, "공개 토론과 재검토를 통해 부안의 동학농민혁명이 백산대회를 통해 혁명의 대의를 밝히는 격문 등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정립과 실질적 혁명이 시작된 지역인 만큼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군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박병래 의원은 "식민사관에 입각한 서술은 역사를 사랑하는 국민

의 정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미래세대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철저히 무명함 검증에 통한 전라도천년사 수정 △철저히 고증과 비판 공개 토론을 통한 재검토를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김장 김치 특별 판매전 개최

부안군은 김장철을 맞아 부안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오는 12월 10일까지 김장 김치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김장 김치 특별 판매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사전 예약접수를 시작했으며 12월 5일까지 사전예약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는 지정날짜에 김장재료를 방문 또는 택배를 통해 전달해 편리하게 김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판매품목은 김장의 핵심 재료인 아삭한 절임배추와 김치양념, 김장 김치를 포함한 김치 7종이며, 김장 김치 담그기 체험을 희망하는 소비자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김치도 담아가고

직매장 회원에게는 10%의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상기온으로 김장배추와 각종 양념류의 가격이 오르는 등 김장비용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평년 가격으로 김장을 할 수 있는 특별 판매전을 열어 소비자들의 호응이 뜨겁다"고 말했다. 이창학 농촌활력과정장은 "김장 김치 특별 판매전을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소비자는 김장에 필요한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부안 농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SRT어워드 '2024 방문도시' 선정

전북 고창군이 SRT 매거진이 선정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내년(2024년)이 더욱 기대되는 방문 도시에 선정됐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국내최초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의 보물 7가지를 보유, 청정 자연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는 힐링 관광지로 인정받아 2024 방문 도시로 선정됐다. SRT 매거진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SRT 어워드를 개최하고 있다. SRT 매거진은 올해 구독자 설문결과와 편집부 및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내년 방문도시 10곳을 선정했다. 고창읍성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읍성 중 하나로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성곽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조선 단종



원년(1453년)에 왜 침을 막기 위해 전라도민들이 유비무환의 슬기로 축성한 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1.7km인데 북문으로 들어가 왼쪽 성벽 위를 몇걸음만 걸으면 고창을 시가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서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한 운곡탐사르 습지는 다양한 생태환경이 만들어져 희

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다. 습지 데크길은 동물들의 이동 통로를 방해하지 않고, 자연 훼손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높게 세워져 있으며 데크 아래 있는 식물도 빛을 받을 수 있게 데크 디딤판 나무의 간격을 일정하게 띄워놓았다. 고창고인돌유적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넓게 고인돌 군집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고창 고인돌은 죽림리와 상갑리, 도산리 일대에 무리 지어 분포하고 있으며 탁자식, 가반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수많은 관광객이 고창의 매력을 느끼고 선택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보건소 '아름다운 4060 갱년기 건강교실' 마무리

정읍시 보건소는 아름다운 4060 갱년기교실을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9주 동안 갱년기 증상의 예방과 개선에 관심이 있는 40~60대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갱년기 증상은 주로 40~60대의 60~80%가 경험하며, 만성질환과 우울 증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과 증상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기호식품·건강체조, 우울감 회복·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진행됐

다. 또한 1:1 맞춤형 한의약 상담과 진료 등 한의학적 접근을 통한 갱년기 증상 개선에 힘썼다. 한 참가자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내장산 탐방과 원에 프로그램이 진행돼 우울감 감소와 심신 이완에 큰 도움이 됐다"고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년 세대가 신체적·정신적 위기를 건강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건강한 중년 건강한 정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